

‘스마트폰 심포학교’ 본격 추진

전북교육청, 준비학교 5곳 공모… 2029년까지 희망학교 60곳 이상 단계적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스마트폰 심포학교’ 운영에 본격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심포학교’ 준비학교 5개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폰 심포학교’ 4개년(2026~2029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준비학교 5개교

를 시작으로 2027년 도전학교 20개교, 2028년 거점학교 40개교, 2029년 희망학교 60개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준비학교는 오는 8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학생생활규칙 개정과 스마트폰을 대신할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2027년 도전학교에서는 학칙 개정을 바탕으로 보드게임, 신체활동, 독서토론 등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 또한 전북학생의회 학생자문단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해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8년에는 시·군별 1개교 이상을 거점학교로 지정해 모두 40개교로 확대하고, 지역협의체 운영과 업무협약(MOU) 확대, 사업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운영 모델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어 2029년에는 희망학교 60개교 이상으로 자원을 확대해 도내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운영사례를 표준 메뉴얼로 제작해 전국에 공유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1월 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취지와 운영 방향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스마트폰 심포학교’는 스마트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스마트폰 사용 기준 마련 △다양한 대체 활동 제공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장기영 전북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폰 심포학교는 단순히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준비학교를 시작으로 참여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남원시·순창군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남원시와 S10 성공 추진·글로벌캠퍼스 활성화 상호 협력키로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23일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S10)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충모 남원시장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S1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남원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남원 글로벌캠퍼스 교육·연구기능 확대 △국가 전략산업 연계 산업인력 양성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조성 △지역발전과 연계한 공동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국가 전략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연구기능 확대와 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남원글로벌캠퍼스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과 지역인재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남원글로벌



캠퍼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교육·연구기능 확대와 지역발전 연계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 모델 구축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충모 시장은 “전북대학교는 남원글로벌캠퍼스 조성 운영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협력 기관이며, 민선9기 핵심 공약인 캠퍼스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인재 양성 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캠퍼스 조성, 행복가속사 건립, 유학생 정주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캠퍼스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원단체와 노조를 잇달아 만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교원단체·노조와 교육정책 협력 방안 모색

전호성 교육감, 첫 간담회 열어… 교원단체·노조 대표들, 정례 협의체 구축 의견 제시

전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원단체와 노조를 잇달아 만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호성 교육감이 23일 교육감실에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한국교육노동조합과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교육감과 교원단체·노조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전북교육의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

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교원단체와 노조는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해 교원 업무경감,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호성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교원단체·노조와의 소통은 전북교육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

축해 현장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노조 대표들은 현장 중심 교육행정과 교원단체와의 협력 의지를 환영하면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업무경감 등 주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노조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기록물 침수 피해대응 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학교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형 침수 피해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3일 부안 한지체합관에서 2026년 기록물 침수 피해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기록물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학교 문서고 침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와 행정문서 등 중요 기록물의 소실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들로 새롭게 구성된 ‘기록물 재난 긴급 대응반’의 현장 대응 능력과 협업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집중호우로 학교 문서고가 침수돼 학교생활기록부와 행정문서, 졸업앨범 등 비전자기록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해 실제 재난 상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피해 접수와 상황 전파를 시작으로 현장 집결, 기록물 반출, 오염 제거, 건조 작업, 동결 처리, 상황 보고까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학부모남성합창단, 25일

전북 ALL FESTA서 재능기부

전주학부모남성합창단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재능기부 공연을 펼치며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공동체 가치 확산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 소속 전주학부모남성합창단은 오는 25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ALL FESTA(시즌 5)에 참가해 재능기부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 학부모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창단한 전주학부모남성합창단은 전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30명의 단원이 이우진 지휘자와 박찬근 반주자의 지도 아래 매주 정기 연습을 이어가며 음악적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학생선수들, 프랑스·스페인서 해외 교육훈련

INSEP·라 마시아 등 방문

글로벌 스포츠 인재 양성 일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우수 학생선수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해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학생선수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23일부터 3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2026년 우수 학생선수 해외교육훈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교육훈련에는 도내 중학교 학생선수 25명이 참가해 프랑스와 스페인의 선진 체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경기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선수들에게 선진 체육영재 육성 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역대 올림픽 개최지 방문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국제적인 시각과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체육 영재 육성기관인 인셉(INSEP)을 방문해 최첨단 훈련시설과 선수 육성 시스템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학생선수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23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우수 학생선수 해외교육훈련을 운영한다.

살펴보고, 프랑스 한국교육원에서 국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내 K-컬처 확산 현황을 살펴보고 역대 올림픽 경기장과 선진 체육시설도 둘러본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세계적인 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육성기관인 ‘라 마시아(La Masia)’를 방문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수 육성 시스템을 견학한다.

학생들은 현지 지도자가 진행하는 맞춤형 체력 향상 프로그램에도 참여

해 유럽 스포츠 과학이 접목된 훈련 기법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이어 사라고사 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을 찾아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참관하며 유럽의 생활체육 문화와 인프라도 살펴볼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단순한 해외 견학에 그치지 않도록 조별 사전연수와 과제 수행을 병행하고 연수 종료 후에는 우수사례를 정리한 결과보고서 작성과 성과보고회를 통해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현장지향형 공학 교육 혁신 본격화

국립군산대,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 최종 선정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이공계 대학 교육 혁신사업인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립군산대는 23일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5억 원씩 총 75억원을 지원받아 이공계 대학생의 실전 역량 강화와 현장지향형 공학 교육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공학자 양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립군산대 사업단은 안민철 전기공학 교수와 사업단장을, 박성진 건축공학과 교수가 부단장을 맡는다. 사업단은 이진 단계 사업인 ‘현장연계 미래선도인재양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동서융합 스마트기술 실전

문제연구단’의 우수한 운영 실적과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신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국립군산대는 이번 사업에서 부산대, 국립부경대, 국립목포대 등 호남권과 동남권 국립대학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광역 컨소시엄을 고도화한다. 컨소시엄 대학들은 ‘차세대 에너지’,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해양생태’, ‘첨단 조선해양’ 등 4대 지역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동·서남권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은 이공계 학부생 중심의 실전 문제 연구팀을 구성하고, 산업체 전문가와 지도교수를 매칭해 밀착형 멘토링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지역 현안 문제해결형 미래 공학 인재로 양성할 방침이다.

/군산=김만호 기자